

## 韓國 茶禮의 史的 考察 — 제 1보 고려시대 이전 —

孫 旻 伶

大田實業專門大學 教養學科  
(1989년 9월 7일 접수)

## A Historical Studies on the Korean Tea Rituals — Part I Before Koryo Dynasty —

Son Min Young

The Dae Jon Vocational Junior College  
(Received September 7, 1989)

### Abstract

The findings of the historical study of the proprieties of Korean traditional tea ritual, based on documents, are as follows.

1. The proprieties of tea ritual for the Imperial Sanctuary and the Buddhist proprieties of tea ritual for Buddha was celebrated during the Silla dynasty.
2. The proprieties of tea ritual during the Koryo dynasty developed in various types, such as the proprieties of tea ritual for the Imperial government, Buddha, Confucians.

### I. 序 論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미풍양속인 다례는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전통문화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다례의 역사적인 면과 사상적인 면에 관한 광범하고도 체계적인 연구와 의례로서의 제도화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전통다례를 밝히려는 황,<sup>1)</sup> 김,<sup>2)</sup> 권,<sup>3)</sup> 김,<sup>4)</sup> 허<sup>5)</sup> 등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황의 논문에는 관아의 다례와 불교 및 도교의 다례에 관한 고찰이 없다.

그리고 김의 논문은 황이 발표한 논문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다.

또 권의 연구는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다례에 한

정되어 있다.

이밖에 김의 논문은 관아, 유교, 불교의 다례에 국한되어 있고, 기타의 다례는 누락되어 있다.

한편 허의 논문에는 종교 전반의 다례와 관행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관아와 민간의 다례 전반을 폭넓게 밝히고 가능한한 종교 다례의 신앙체계도 구명하므로써 장차 의례준칙으로 계승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등에 걸친 규범 다례와 관행 다례를 문헌에서 찾아내었다.

그리고 「다례」라는 용어는 「음력으로 다달이 초하루·보름·명절·조상의 생일에 지내는 간단한 낮제사」<sup>6)</sup>를 뜻하기도 하고, 晝茶小盤果, 夜茶小盤果<sup>7)</sup>의 경

1) 黃乙順, "韓國茶의 由來와 그 禮俗에 關한 小考", 碩士學位論文, 東亞大學校 大學院, 1975.  
2) 金奎鉉, "朝鮮時代 茶禮小考", 「鄉土 서울」 第 36號(1979, 5), 83-112面.  
3) 權兌運, "土產茶와 茶禮考", 「湖西史學」 第 8·9合輯(1980, 12), 11-28面.  
4) 金正奎, "中韓兩國飲茶禮俗之研究", 博士學位論文, 台灣師範大學校 大學院, 1985.  
5) 許忠順, "韓國 傳承茶禮의 時代的 考察", 碩士學位論文, 東亞大學校 大學院, 1988.  
6) 東亞出版社, 「동아 新큰사이스 國語辭典」(서울: 東亞出版社, 1971), 1835面.  
7) 金春運, "18世紀 官中飲食考", 「대한가정학회지」 제 22권 4호, 1984, 11面.

우처럼 차가 없는 차림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人·神·佛에게 차를 바치는 예의를 다례라고 한다」<sup>8)</sup>는 정의로 개념을 통일하였다.

## II. 本 論

### 1. 신라시대

#### 1) 차의 풍습

##### (1) 煮茶法

신라시대에 성행된 차의 풍습에는 쌍제사를 창건한 眞鑑國師(755-850)의 비석글에 보이듯이 餅茶를 달여 마시는 煮茶法이 있었다.

「다시금 중국차를 공양하는 이가 있으면 설나무로 돌술에 불때어 가루내지 않고 달여서 이르기를, 「나는 이 맛이 어떠한가를 가리지 않고 단지 배만 적실 뿐이다」라고 하였다. 참된 것을 지키고 속된 것을 거스르 기(忤)가 모두 이와 같았다」<sup>9)</sup>

##### (2) 點茶法

또 다른 풍습으로는 李奎報(1168-1235)의 「兩行月日記」에 보이듯이 (未茶의) 點茶法이 있었던 것 같다.

「...결에는 한 암자가 있는데, 속말로 蛇包聖인이 옛날에 살던 곳이라고 한다. 원효가 와서 살았기에 사포 또한 와서 모시고 있었는데, 차를 달여서 曉公에게 올리려 하였으나 샘물이 없음을 근심하다가, 그 물이 문득 바위틈에서 솟아나고, 맛이 매우 달고 젓과 같아서 點茶를 시험하였다」<sup>10)</sup>

이러한 차의 풍습으로 거행된 신라시대의 다례에는 종교의 다례와 불교의 다례가 있었다.

#### 2) 종교의 다례

신라에서는 시조인 박혁거세의 廟를 제2대인 남해왕 3년(6)에 세우고 철마다 제사를 지냈으나, 제상에 차를 올렸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sup>11)</sup> 그러나 삼국통일을 앞둔 문무왕이 즉위년(661)에 내린 制書에 따라서 60년동안 끊어진 가락국 종교의 제사가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로왕의 17대손인 賈世級干이 나라의 뜻을 받들어 30頃의 王位田으로 해마다 술을 빚고 떡, 밥, 차, 과일 등의 음식을 갖추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그 제사 날짜는 제2대인 거등왕이 정한 정월 3일과 7일, 5월 단오날, 8월 초닷새, 보름이었다.

그리고 단오날의 謁廟祭에는 初獻, 亞獻, 終獻의 獻酌이 있었다.<sup>12)</sup>

한 연구에 따르면,

「駕洛國記는 제의를 통하여 보다 구체성을 지니는 이른바 神話宗教(mythic religion)의 상대적인 祭儀宗教(ritual religion)의 양상을 띄워 迎神祭儀를 위하여 신화적인 모티브가 미리 설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좋은 예가 되는 것이다」<sup>13)</sup>

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 3) 佛教의 茶禮

신라불교 다례의 유형은 華嚴사상에서 비롯된 오대산의 문수신앙에 의한 다례와 淨土사상에서 비롯된 미륵신앙에 의한 다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 (1) 華嚴宗의 茶禮

「三國遺事」에 수록된 「(五?)臺山의 五萬眞身」과 「溟州 五臺山의 實叱徒太子傳記」에는 五臺山에 들어가서 庵子를 짓고 수도하던 신라의 實叱徒太子와 孝明太子가 五萬眞身에게 예배하고 매일 이른 아침에 干筒水를 길어서 차를 달여 1만의 진신문수에게 공양하였다는 說話가 적혀있다.

또한 王位를 아우인 孝明太子에게 물려준 實叱徒太子가 五臺山의 神聖窟에서 50년 동안을 수도한 결과, 仞利天神이 아침 저녁으로 法을 듣고 淨居天衆들이 차를 달여서 바치더라는 것이다.<sup>14)</sup>

중국에서도 화엄종의 본산인 오대산에는 法雲菴과 얽힌 전설처럼 차의 전설이 많다.

##### (2) 淨土宗의 茶禮

「三國遺事」의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에 따르면 미륵신앙에 의한 煎茶供養의 說話가 보인다.

「3월 삼짇날, 왕이 歸正門의 다락에 남시어 좌우의 신하에게 “누가 길에 나가서 禁服할 스님을 얻어 오겠느냐”고 하였다...다시 한 스님이 해어진 장삼을 입고 櫻筒을 지고 남쪽에서 오니 왕이 기뻐하여 다락위로 맞이하여 통속을 보니 차 달이는 기구가 담겼을 뿐이었다. “너는 누구냐”하니 “忠談이 로소이다”라고 하며, “어디서 오는 길이야”하니 “소승이 해마다 3월 삼짇날과 국화절(9월 9일)이면 차를 달여서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에게 공양

8) 金明培, 「茶道學」(서울:學文社, 1984), 119면.

9) 中樞院(編), 「朝鮮金石總覽」(京城:朝鮮總督府, 1919), 70면.

10) 李奎報, 「東國李相圖集」第23卷, 77면.

11) 金富軾, 「三國史記」辛鎭烈 譯(서울:東西文化社, 1976), 56면.

12) 一然, 「三國遺事」權相老 譯(서울:東西文化社, 1978), 200-201면.

13) 趙憲圖, 「駕洛國記의 祭儀構造研究」, (碩士學位論文, 蔚山大學校 大學院, 1983), 38면.

14) 一然, 前掲書, 295-297면.

하옵는데 오늘도 벌써 차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  
웁니다”하여 왕이 “과인에게도 한잔 나눌 수 있겠  
느냐”하시자, 곧 차를 달여 드리니 차 맛이 특이하  
고 그곳에서도 특이한 향기가 풍겼다.<sup>15)</sup>

「讚耆婆郎歌」를 지은 이로서도 이름난 忠談師가 미륵  
세존에게 차를 공양한 것은 彌勒下生信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sup>16)</sup>

## 2. 고려시대

### 1) 차의 풍습

#### (1) 點茶法

고려시대의 초기와 중기에는 研膏茶를 차맷돌에 갈아  
낸 末茶와 湯罐에서 끓인 물을 찻사발에 넣고 차순가락  
이나 찻술(茶筴)로 저어서 乳花를 일으켜 마시는 點茶  
法이 성행되었다.<sup>17)</sup>

#### (2) 泡茶法

그리고 고려시대의 말기에는 芽(葉)茶와 끓인 물을  
茶罐에 넣고 우려마시는 泡茶法이 있었던 것 같다.<sup>18)</sup>

#### 2) 官衙의 茶禮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의 조정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아홉가지의 차례가 거행되었다.

##### (1) 燃燈會

해마다 음력 2월 15일이면 궁중의 康安殿에 설치된  
浮階(壇)에서 연등회의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그 중에서  
차례는 다음과 같이 거행되었다.

「近侍官이 차를 올리면 執禮官이 殿閣을 향하여  
국궁하고 술과 식사를 올릴 때마다 執禮官이 모두  
殿閣을 향해서 국궁하여 권하며 뒷사람은 모두 이  
를 따른다. 다음에 태자 이하 侍臣에게 차를 下賜  
하는데 차가 이르러면 執禮官의 贊拜로 태자 이하가  
再拜하고 執禮官의 贊飲으로 태자 이하가 모두 마  
시기를 마치고 揖한다」<sup>19)</sup>

##### (2) 八關會

해마다 음력 11월 14일이면 궁중에 있는 儀鳳門의 층  
계 밑에 설치된 浮階에서 개최된 八關會(小會)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례가 거행되었다.

「왼쪽 執禮官이 태자와 上公을 인도하여 洗所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近侍官이 차를 올리면 執禮官

이 殿閣을 향해서 국궁하여 권하며, 近侍官이 올리  
는 차와 식사를 베풀고 太子 公侯伯 및 樞密 兩階  
侍臣의 차와 식사를 베풀며, 中階의 侍臣은 서서  
식사를 받은 다음에 近侍官이 차를 올린다. 다음에  
太子 이하 樞密 侍臣이 모두 再拜하고 차를 받아  
마시기를 마치고 揖한다」<sup>20)</sup>

한편, 해마다 음력 11월 15일이면 같은 곳에서 八關  
會의 大會가 개최되었는데 그 중에서 茶禮는 다음과 같  
이 거행되었다.

「近侍官이 차와 식사를 올리면 執禮官이 殿閣을  
향해서 국궁하고 권하며 다음에 太子 이하 侍臣의  
차와 식사를 차리는데, 殿上에 차를 올리고 술을  
올리며 식사를 올리는 것과 太子 이하 侍臣에게 차  
를 下賜하고 술을 베풀며 식사를 차리는 禮數와 樂  
을 시작하고 중지하는 것도 모두 小會의 의식과 같  
이 한다」<sup>21)</sup>

고려시대에 연등회와 팔관회를 學國的인 행사로 개최  
한 까닭은 太祖인 王建이 제정한 「訓要」의 제 6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朕이 지극히 원하는 바는 燃燈과 八關에 있는  
것이다. 燃燈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요, 八關은  
天靈과 五嶽, 名山, 大川, 龍神을 섬기는 것이  
다」<sup>22)</sup>

##### (3) 重刑奏對儀

무거운 형벌에 대하여 임금의 물음에 刑部의 奏對員  
이 대답하는 의식에서의 茶禮는 內殿에서 거행되었다.

「茶房參上員이 결문으로 들어와서 차를 올리면  
內侍院의 七品官員이 두경을 언다. 執禮官이 殿上  
의 앞기둥 바깥에 올라가 面拜하여 차를 권하고 찻  
잔을 놓은 뒤에 殿閣에서 내려오고 다음에 院房의  
八品 이하의 官員이 宰臣과 樞密에게 차를 올리며  
執禮가 또 殿上에 올라가 엎드려 찻잔을 비워 주십  
사 하고 面請한다」<sup>23)</sup>

##### (4) 北朝의 詔使를 맞는 儀式

北朝의 詔使를 맞이하는 의식에서의 茶禮는 乾德殿에  
서 거행되었다.

「마침내 閣使가 客省에서 차와 酒食을 下賜하는

15) 上揭書, 145-146面.

16) 黃壽永, “新羅南山三花嶺彌勒世尊”,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서울: 藝堂 金載元博士回甲紀念事業委員會, 1969), 31面.

17) 金明培, 前揭書, 217-249面.

18) 金明培, 「韓國의 茶詩鑑賞」(서울: 大光文化社, 1988), 88面.

19) 金宗瑞外, 「高麗史」 翻譯陣 譯(釜山: 東亞大學校 出版部, 1982), 429-430面.

20) 上揭書, 435-444面.

21) 上揭書, 451面.

22) 上揭書, 429-430面.

23) 上揭書, 257-258面.

敎旨가 있음을 전하면 舍人의 口令으로 再拜하고 인도하여 殿門으로 나간다. 임금이 자리 뒤에 나가 가면 闈門員이 下級 使節을 인도하여 殿闈의 마당에 들어가 再拜하고 聖上의 體候를 여쭙면 再拜한다. 闈使가 所司에서 酒食을 下賜하람시는 敎旨가 있음을 전하면 口令으로 再拜하고 門으로 나가기를 마치면 차를 올리는데 첫 잔은 使臣에게 친히 권하며 酬酌하고 돌아와 再拜하고 자리에 나아가 마시기를 마치면 서로 揖하고 돌아와 자리에 나아가 中級 및 下級使節에게도 酒食의 下賜를 마친다.<sup>24)</sup>

(5) 元子の 誕生을 祝賀하는 儀式

元子の 誕生을 祝賀하는 의식에서 茶禮는 궁중의 廳幕에서 간소하게 거행되었다.

「손님과 주인이 서로 揖하고 자리에 나아가기를 마치면 차와 술을 올린다」<sup>25)</sup>

(6) 王太子를 冊封하는 儀式

王太子를 책봉하는 의식에서의 茶禮는 東宮門의 대자리를 깔은 자리에서 거행되었다.

「손님과 주인이 서로 揖하고 자리에 나아가 차 올리기를 마치면 술이 이른다」<sup>26)</sup>

(7) 王子·王姬를 冊封하는 儀式

王子와 王姬를 책봉하는 의식에서의 茶禮는 大觀殿에서 거행되었다.

「執禮官의 절하라는 口令으로 손님과 주인이 서로 揖하고 자리에 나아가 차 올리기를 마친다」<sup>27)</sup>

(8) 公主를 下嫁시키는 儀式

公主를 시집보내는 의식에서의 茶禮는 궁중의 廳幕에서 거행되었다.

「손님과 주인이 서로 揖하고 자리에 나아가기를 마치면 차와 술을 베푸는데 술이 이르면 손님과 주인이 함께 일어나 獻酬하기를 마치고 음식을 베푼다」<sup>28)</sup>

(9) 群臣을 잔치하는 儀式

群臣에게 잔치를 베푸는 의식에서의 茶禮는 大觀殿에서 거행되었다.

「近侍官이 차를 올리면 執禮官은 몸을 국궁하여 권하고, 다음에 太子 이하의 群臣에게 차를 下賜하

면 太子 이하 群臣이 再拜하고 執禮官의 마시라는 口令으로 太子 이하가 마시기를 마치고 揖한다」<sup>29)</sup>

3) 佛敎의 茶禮

(1) 宗派와 思想

고려시대의 불교는 五敎(法性宗, 戒律宗, 圓融宗, 慈恩宗, 始興宗) 兩宗(天台宗, 禪宗)의 七宗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sup>30)</sup> 思想的으로는 華嚴宗(圓融宗), 天台宗, 禪宗의 佛敎思想이 主流를 이루고 있었다.<sup>31)</sup>

위에서 高麗佛敎茶禮를 살필 수 있게 表出된 것은 禪宗의 茶禮이다.

고려의 佛門에서 지켜진 禪宗의 茶禮規範은 「勅脩百丈清規」와 「禪苑清規」이다.

(2) 「勅脩百丈清規」

① 「百丈清規」

처음 나온 「百丈清規」는 당나라 德宗의 貞元年間(785-804)에 洪州(江西省 南昌府 奉新縣)의 百丈山에 있는 大智壽聖禪寺의 百丈懷海(724-814)禪師가 制定한 禪門의 日用行事 規範이다.

그러나 그 뒤에 「百丈清規」는 없어져서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② 「勅脩百丈清規」

元나라 順宗의 元統 3年(1335)에 順宗의 勅命으로 大智壽聖禪寺의 住持로서 百丈懷海禪師의 18大 法孫인 東陽德輝禪師가 至元 2年(1336)부터 2年間에 걸쳐서 다음의 文獻을 參照 折衷하여 集大成한 것이 「勅脩百丈清規」(1343年 初刊)이다.

1. 宋나라 宗頤의 「禪苑清規」
2. 宋나라 惟勉의 「叢林校定清規摠要」
3. 元나라 澤山式威의 「禪林備用清規」

③ 內容

모두 9章 91節 87科로 구성된 「勅脩百丈清規」중에서 茶禮와 관계되는 部分은 다음과 같다.

卷上

· 住持章 第五

後任의 住持를 議學할 때는 尊茶, 上茶, 會茶의 儀式이 거행된다.

卷下

· 兩序章 第六

寮元은 寮寮에 대한 茶湯의 供需를 맡고, 水頭는 물 끓이기를 맡는다.

24) 上揭書, 270-271面.

25) 上揭書, 313面.

26) 上揭書, 313面.

27) 上揭書, 348-349面.

28) 上揭書, 357面.

29) 上揭書, 385-387面.

30) 李能和, 「朝鮮佛敎通史」卷下(京城: 新文館, 1918), 480面.

31) 經典信仰儀禮 註(18), 洪潤植, 「高麗佛敎의 信仰儀禮」, 「韓國密敎學論文集」(서울: 大韓佛敎眞覺宗, 1986), 919面.

## · 大衆章 第七

喫食法 중에 喫茶法이 적혀있다.

## · 節臘章 第八

4월 13일(음력)의 楞嚴會에는 茶湯을 올리고 四節秉拂에는 獻茶가 있다.

## · 法器章 第九

喫茶時의 鍾치기, 點茶時의 版치기, 茶鼓의 打鼓法 등이 적혀있다.<sup>32)</sup>

## · 百丈清規의 遵行

元나라의 國子監丞인 危素가 지은 「林川 普光寺重鵬碑」에 따르면, 고려의 圓明國師(1275-1338)가 百丈清規를 遵行하였다고 한다.

「國師는 龍泉寺 主持가 되어 비로소 百丈(懷)海禪師의 禪門清規를 取하여 이를 行하였다」<sup>33)</sup>

## (3) 「禪苑清規」

## ① 成立

「禪苑清規」는 송나라 哲宗의 崇寧年間(1102-1106)에 眞定府(河北省 正定縣)의 十方洪濟禪院에 있던 宗頤禪師가 「百丈清規」의 復興을 꾀하여 5年間(1099-1103) 禪寺를 찾아서 모은 生活規範을 集大成한 것이다.

## ② 內容

모두 10권으로 엮어진 「禪苑清規」에서 茶禮와 관계되는 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第一卷

赴茶湯(茶湯의 모임에 다달오다)

## 第二卷

書狀(차 모임의 초대장)

## 第四卷

知客(손님 접대역)

## 第五卷

知事頭首點茶(知事와 頭首를 위한 點茶)

## 第六卷

謝茶(차 대접에 사례한다)

## 第七卷

尊宿受疏<sup>34)</sup>(高僧大德의 편지받기)

## ③ 禪苑清規의 遵行

「禪苑清規」는 송나라 徽宗의 崇寧 2年(1103)에 初刊되었고, 8年 뒤인 政和 元年(1111)에 重添刊行되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高宗 41年(1254)에 宋나라의 重

添足本을 高麗分司大藏都監에서 重雕覆刻하였다.<sup>35)</sup>

그러므로 적어도 13世紀의 고려에서는 「禪苑清規」가 遵用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4) 儒敎의 茶禮

## (1) 朱子家禮의 傳來

송나라 朱子(1130-1200)의 文公家禮가 고려에 전래된 것은 忠肅王代(1314年)에 白頤正이 元나라에서 朱子學을 배워서 돌아왔을 때라고 보여진다.<sup>36)</sup>

## (2) 朱子家禮의 遵行

朱子家禮는 麗末의 儒者에 의해서 遵行된 흔적을 살필 수가 있다.

麗末에 朱子家禮의 採用을 上疏한 儒者는 鄭夢周(1337-1392), 趙浚(?-1405), 李崇仁(1349-1392) 등이었다.<sup>37)</sup>

## ① 鄭夢周

鄭夢周의 文集인 「圃隱集」의 祭儀條에는

「선생의 行狀을 보건대 洪武 庚午年(1390)에 선생이 士庶人으로 하여금 朱子家禮를 본따서 廟堂을 세우고 신주를 모셔 선대의 제사받들기를 청하였다」<sup>38)</sup>

라고 적혀있다.

## ② 吉再

李德懋(1741-1793)는 「靑莊館全書」의 吉再(1353-1419) 行狀에서

「再는 鄭夢周, 李穡, 權近의 門下에 유학하여 비로소 性理學을 배웠다...임오년(1402)에 모친이 돌아가자 한결같이 朱子家禮를 따르고 불교의식을 따르지 않았다」<sup>39)</sup>

라고 하였다.

## III. 結 論

1. 新羅時代에는 王室의 宗廟茶禮와 佛敎에서는 信仰體系로 볼 때 華嚴宗과 淨土宗의 茶禮가 舉行되었다.

2. 高麗時代에는 官衙의 茶禮를 비롯하여, 宗敎茶禮의 信仰體系로는 佛敎에서는 禪宗의 「百丈清規」와 「禪苑清規」에 의한 茶禮와 儒敎에서는 濂洛關閩學統을 잇는 初期의 性理學者들에 의해서 朱子의 「家禮」에 의한

32) 高楠順次郎, 「大藏經」(東京: 大正一切經刊行會, 1928), 1109面.

33) 中樞院, 前掲書, 495-496面.

34) 宗頤「禪苑清規」, 1-67面.

35) 大屋德城, 「高麗板重添足本 禪苑清規」, 「書物同好會報」, 第17號(1942, 9), 23面.

36) 金龍德, 「朱子學的 民族主義論」, 歷史學會(編), 「韓國史의 反省」(서울: 新丘文化社, 1969), 138面.

37) 稻葉岩吉, 「麗末鮮初に於ける家禮傳來及び其意義」, 「靑丘學叢」, 第23號(1936, 2), 3面.

38) 李漢祚, 「韓國名著選集」5(서울: 新華社, 1963), 212-222面.

39) 李德懋, 「靑莊館全書」卷65, 23面.

冠婚喪祭의 茶禮가 舉行된 것으로 보여진다.

### 參考文獻

1. 黃乙順, “韓國茶의 由來와 그 禮俗에 關한 小考”, 碩士學位論文, 東亞大學校 大學院, 1975.
2. 金奎鉉, “朝鮮時代 茶禮小考”, 「鄉土 서울」(1979, 5), 83-112面.
3. 權兌遠, “土產茶와 茶禮考”, 「湖西史學」(1980, 12), 11-28面.
4. 金正奎, “中韓兩國飲茶禮俗之研究”, 博士學位論文, 台灣師範大學校 大學院, 1985.
5. 許忠順, “韓國 傳承茶禮의 時代的考察”, 碩士學位論文, 東亞大學校 大學院, 1988.
6. 東亞出版社, 「동아 新큰사이스 國語辭典」 서울: 東亞出版社, 1971.
7. 金春蓮, “18世紀 官中飲食考”, 「대한가정학회지」(1984), 11面.
8. 金明培, 「茶道學」 서울: 學文社, 1984.
9. 中樞院, 「朝鮮金石總覽」京城: 朝鮮總督府, 1919.
10. 李奎報 「東國李相國集」第 23卷.
11. 金富弼, 「三國史記」辛鎬烈 譯, 서울: 東西文化社, 1976.
12. 一燃, 「三國遺事」權相老 譯, 서울: 東西文化社, 1978.
13. 趙憲國, “駕洛國記의 祭儀構造研究”, 碩士學位論文, 慶南大學校 大學院, 1983.
14. 黃壽永, “新羅南山三花嶺彌勒世尊”,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서울: 藝堂 金載元博士回甲紀念事業委員會, 1969.
15. 金明培, 「韓國의 茶詩鑑賞」 서울: 大光文化社, 1988.
16. 金宗瑞外, 「高麗史」魏譯障 譯, 釜山: 東亞大學校 出版部, 1982.
17. 李能和, 「朝鮮佛教通史」卷下, 京城: 新文館, 1918.
18. 洪潤植, “高麗佛教의 信仰儀禮”, 「韓國密教學論文集」 서울: 大韓佛教眞覺宗, 1986.
19. 高楠順次郎, 「大藏經」東京: 大正一切經刊行會, 1928.
20. 宗頤 「禪苑清規」
21. 大屋德城, “高麗板重添足本 禪苑清規”, 「書物同好會報」(1942, 9), 23面.
22. 金龍德, “朱子學的 民族主義論”, 「韓國史의 反省」 서울: 新丘文化社, 1969.
23. 稻葉岩吉, “麗末鮮初に於ける家禮傳來及び其意義”, 「青丘學叢」(1936, 2), 3面.
24. 李漢柞, 「韓國名著選集」5, 서울: 新華社, 1963.
25. 李德懋, 「青莊館全書」卷65.